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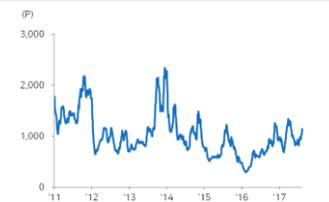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9,519.8	17.6	168,000	-0.3	-0.3	-0.6	21.3	60.5	136.7	0.9	0.9	1.3	0.6
현대로보틱스	7,817.6	18.2	480,000	0.5	20.3	26.5	NA	5.3	6.0	1.0	0.9	19.4	15.8
현대일렉트릭	1,126.0	7.5	303,500	-4.0	-0.3	13.5	NA	14.9	10.1	1.4	1.2	9.5	13.1
현대건설기계	1,387.0	10.0	387,000	0.5	3.2	59.9	NA	12.1	9.2	1.6	1.4	13.1	15.8
삼성중공업	4,212.0	19.5	10,800	-0.9	-9.2	-4.4	16.8	54.8	116.8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9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080.0	13.0	104,000	0.0	0.0	11.7	54.8	10.2	35.3	0.9	0.8	8.9	2.4
한진중공업	4,550.0	4.3	4,290	1.2	2.1	16.6	27.5	-13.4	9.7	0.5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266.1	28.7	51,400	0.2	-11.2	-20.4	-10.5	9.5	9.1	1.4	1.2	15.9	14.6
두산발켓	3,714.2	24.4	37,050	-0.7	4.8	-4.3	3.3	16.3	14.9	1.0	1.0	6.6	6.7
현대로템	1,555.5	28.6	18,300	-1.6	-7.3	-15.9	0.8	34.7	23.4	1.1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06.3	46.6	22,500	-2.4	-10.4	-10.0	6.6	11.8	10.4	1.0	0.9	8.5	9.0
성광벤드	272.6	13.7	9,530	0.0	-6.6	-9.2	7.6	30.8	17.7	0.6	0.6	1.9	3.2
태광	246.7	17.0	9,310	-1.4	-7.4	0.0	12.3	34.8	19.2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948.2	10.8	18,300	-1.9	-9.2	-25.0	-32.7	18.2	9.9	0.6	0.6	3.9	6.2
두산인프라코어	1,732.3	13.5	8,350	-1.5	2.2	-10.3	-5.3	10.0	8.0	0.8	0.8	8.5	10.2
두산엔진	274.2	5.2	3,945	0.5	4.5	0.3	20.1	21.2	24.2	0.5	0.5	2.4	2.0
한국항공우주산업	3,596.8	19.5	36,900	-4.5	-35.9	-42.3	-44.9	15.3	12.8	2.3	2.0	15.6	16.7
한화테크윈	1,998.8	21.4	38,000	-2.3	-5.5	-26.2	-12.5	19.1	14.4	0.8	0.8	4.4	5.6
LIG넥스원	1,740.2	20.6	79,100	-2.1	15.0	-2.7	-1.7	17.6	17.3	2.4	2.2	15.4	13.5
태웅	394.1	4.3	19,700	-5.1	-18.9	-25.8	-12.2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59.7	2.9	5,920	-0.2	-2.3	-9.6	3.0	-27.5	11.8	1.4	1.3	-5.1	12.0
한국카본	261.6	16.6	5,950	-0.7	-3.3	-10.0	-1.7	23.3	22.1	0.8	0.8	3.5	3.6

주: 커비리지 업체 PB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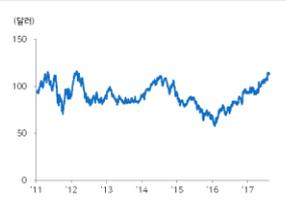
##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17** 115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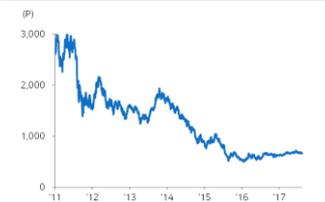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0.06** 113.65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Clarksons clocks up strong first half profit

Clarksons은 거래량 증가와 Bulker 시장이 활기를 띠며 금융 비즈니스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세전이익에서 25% 상승을 기록함.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시장에서 재조정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신조선 시장에서 낮은 활동성은 업황에 대한 가시성을 제한함. (TradeWinds)

### Maersk Line set for return to the black, analysts say

글로벌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Maersk Line은 이번 주 발표할 2분기 실적에서 약 3.6억달러의 이익을 내며, 흑자전환 할 것으로 예측됨. 또 컨테이너선 운임에서 약 10% 상승할 것으로 기대함. Masersk Line에 대한 연간 기준 컨센서스는 약 18억달러로 상승함. (TradeWinds)

### Aframax rates decline amid Libyan turmoil

리비아의 안보 문제와 Zueitina 터미널의 가동 중단으로 리비아의 석유 생산량이 30% 감소함. 발틱 거래소에 따르면, 지중해 전역의 Aframax 출하량은 4% 감소한 WS 76.67을 기록함. 유조선의 일일 수익은 한 달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함. (TradeWinds)

### Aussie company confirms LNG imports

호주의 AGL Energy는 가스가 부족한 Victoria주 Crib Point에 LNG 수입시설 설치를 결정함. 계획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연간 950억Cubic feet 규모의 가스를 수입하며, 2019년에 건설을 시작해 2020년~2021년 가동을 목표로함. 그러나 재기회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Upstream)

### SITC reveals order for six boxships

홍콩 선사 SITC International Holdings는 1.1억달러 규모의 피더 컨테이너선 발주 계약을 대선조선과 체결함. 지난 5월 1,011TEU급 2척을 발주한 후, 옵션 행사로 총 4척의 선박을 추가 발주함. 추가 발주한 4척의 선박은 총 0.7억달러 규모이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 Cheniere plans to open new China office

미국 LNG 수출업체 Cheniere는 중국 구매자들과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베이징에 사무소를 설치함. 지난 5월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 구매자들은 미국의 장기 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게 됨. 중국은 올해 상반기 0.5백만톤의 LNG를 미국에서 수입했고, 이는 전체 LNG 수입량의 약 3%에 해당함. (Upstream)

### US shale output to rise again in September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은 Oklahoma 주 Anadarko 분지에서 생산량이 급증한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 셰일 생산량은 9월부터 하루 약 12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월간 생산량 예측치가 변경됨에 따라 EIA는 다음달 6.2백만배럴의 총 유류생산이 예상되며 9개월 연속 증가를 추정함. (Upstream)

### 대우조선, 상반기 순이익 '1조원' 돌파...사상 최대실적 달성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매출액 3조 4,576억원(+0.2% YoY), 영업이익 6,647억원(흑자전환), 순이익 1조 2,547억원(흑자전환)을 기록함. 해양플랜트에서 선주사 측과 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확보하고, 지체보상금 조정에 성공했던 점이 흑자 전환의 계기임. 올해 수주는 총 11척, 22억 달러 규모에 달함.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검토와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가지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사대상 담당자는 2017년 8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